

仙巖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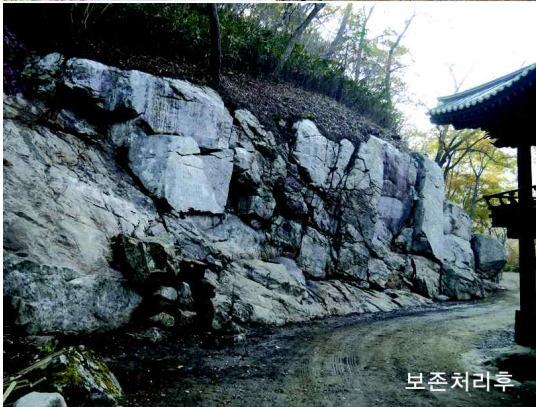
통권2호 불기이천오백오십구년 | 2015. 02

보존문리와 철학을 바탕으로 원칙에 충실하겠습니다!!!



보존처리전

보존처리중



보존처리후

- 함양 벽송사 삼층석탑 보수공사
- 함양 승안사지 삼층석탑
- 산청 단속사지 서삼층석탑 보수정비
- 함천 해인사 길상탑 보존처리
- 함양 일두고택 방연재 도포사업
- 한산대첩 기념비 보수공사
- 하동 쌍계사 영산회상도 보존처리공사
- 범어사 삼층석탑 보수정비공사
- 창녕 관룡사 용선대 석조여래좌상 보존처리공사
- 김해 수로왕릉 방축제 및 방연제 도포공사
- 충주원평리미륵석불삼층석탑보존처리공사
- 남해충렬사 충무이공묘비 보존처리 용역
- 오갑사지석불좌상 보존처리공사
- 통도사 석조문화재 보존처리사업
- 산림박물관 수장고 훈증소독
- 금대사 삼층석탑 보존처리사업
- 극락사지 석조여래입상 보존처리사업
- 함양박물관 소장 지류유물 보존처리사업
- 청룡사 보각국사탑 및 석등 보존처리
- 세심사다층탑 보존처리
- 노성향교 보수정비공사
- 연평부원군신도비 보수정비사업
- 선암사 대각암승탑 보존처리공사
- 선암사 동승탑 보존처리공사
- 선암사 북승탑 보존처리공사
- 선암사 대웅전 방염처리공사
- 영암 엄길리 암각 매향명 보존처리공사
- 선암사 승선교 주변정비사업



교남문화보존연구소

- 본사 : 전북 순천시 조례동 1599-9 천지파크오피스텔 503호
- 전화 : 061) 723-8922 ● 팩스 : 061) 723-8923



선암사의 선지식



대각국사 의천 문종9(1055) - 속종6(1101)

고려 제11대 왕인 문종의 넷째 아들로 11세에 영통사로 출가를 자원하였다. 속명은 왕후(王煦) 호는 우세(祐世) 법명은 의천이다. 선암사 대각암에 주석한 인연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대각암 승탑의 주인으로 추정된다. 불교 전적을 정비하고 『고려속장경 [교장]』을 간행하였으며, 교를 기반으로 하여 선을 흡수하고 교단을 통합하고자 노력하였다.

매 화 향 기 가 득 한 조 계 산

仙巖寺

선 암 사

www.선암사.org

월간 『仙巖寺』 불기2559년 통권2호 2014년 01월 28일 발행

선암사의 선지식	대각국사 의천	2
주지스님 법문	수행, 가까이 있습니다!	4
기초교리 강좌	부처님의 생애(1) - 도솔래의(兜率來儀)	6
선암사의 성보문화재	보물 제1419호 선암사석가모니불괘불탱 및 부속유물	8
이달의 풍경	매향입춘(梅香立春)	10
신도탐방	무구 박병열 거사	12
사찰건축의 이해	사찰의 구조 - 삼문(三門)	14
선암사 소식	1월 행사 및 2월 예정행사	16
신도회 소식	사랑방 이야기	18
선암사 안내	선암사 성지순례 안내	19



사진 진우

발행일 2015년 01월 28일
 발행인 법원(法願)
 발행처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
 편집장 김희철
 편집위원 진우 성궁 현광 허수길

주소 전라남도 순천시 승주읍 선암사길 450
 전화번호 061) 725 - 5108
 F A X 061) 753 - 5108
 홈페이지 www.선암사.org

표지설명

일주문 법수석

산문을 지키는 일주문 스님들의 법수석이
 샅된 마음을 경계하고 서 있다.

수행, 가까이 있습니다!



선암사 주지 법원 스님

안녕하십니까? 불자여러분, 올미년 새해를 맞아 계획은 잘 세우셨습니까?

저는 올해 아주 특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담겨있는 선암사가 분규라는 이유로 너무 오랫동안 관심 받지 못하여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선암사를 다시 우리 불자들의 품안에 되돌려 드리고자 선암사 제자리 찾기에 원을 세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꼭 필요한 일이기도 하지만 크게 보면 불자들, 우리 국민들, 또 온 인류를 위해서라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자신만을 위한 계획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주위의 소중한 사람, 환경 등을 위한 큰 계획도 하나씩 세워보는 그런 신년 1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계획들을 세우는 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왜' 인가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살을 빼고 금연을 하고 영어를 배우는 등 우리가 세운 계획이 무엇을 위한 일인지 구체적인 좌표가 설정돼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 행위 자체에 치우치고 집착하기 쉽습니다.

저도 풀려야 풀 수 없는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말라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한번 말라보는 것이 소원입니다. 알고 보니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막 출가를 하고 대중생활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가끔씩 만두가 나옵니다. 한 사람 앞에 두 개씩 딱 정해져서 나옵니다. 빨리 먹으면 하나를 더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먹고 내가 좋아하는 저 만두를 하나 더 먹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은 인과응보입니다.

먹지 않으면 찢 수가 없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살이 찌는 것도 건강이 안 좋은 것도 담배를 끊지 못하는 것도 본인의 잘못된 습관들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습관은 오랫동안 축적되어졌기 때문에 정말 바꾸기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얼마나 힘든 일이나면 어른스님들께서 자신의 습관을 바꾸는 것 그것이 수행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수행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수행이 거창한 게 아닙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습관을 하나씩 개선하고 바꾸는 게 바로 수행입니다. 자기 자신을 살피고 가다듬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자신의 잘못된 습관들을 알아차리고 그런 습관들을 바꾸고 개선하기 위해 어떤 수행을 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수행의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올 한해는 좋지 않는 습관들 꼭 개선해서 여러분들도 다 수행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불교는 많은 사람들이 교리와 기복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행을 통하여 자신의 세계를 넓히고 신심을 증장시키는 데에는 많이 결여되어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육이나 프로그램들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수행을 통해 스스로가 체득하는 과정입니다. 머리로 이해하고 필요에 의해서만 하는 신앙생활로는 생활 불교가 되기 어렵습니다.

한국의 불자들이 하는 수행에는 크게 다섯 가지 수행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가장 많이 하면서도 쉽게 할 수 있고 깊은 지식이 필요하지 않는 절 수행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선수행, 염불수행, 간경수행, 주력수행이 있습니다.

오늘은 절 수행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절 수행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기 자신을 가장 낮추는 수행법입니다. 절을 하면서 자신의 한계에 자꾸 부딪히고 깨고 부딪히고 깨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몸과 정신이 견고해지며 부처님에 대한 경외감 감 믿음이 생기며

견고한 믿음에서부터 강인함이 생기고 강인함에서 다시 용기가 생기고 그 용기가 불자들이 어려워하고 두려워하는 상황에서 지혜를 가져다줍니다. 불퇴전의 심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으며 남의 핏에 빠지지 않고 지혜롭게 헤쳐 갈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 이런 것들을 절 수행을 통해서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절을 하는 이유를 불자 분들에게 물어보면 운동 삼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살을 빼려고 하시는 분등 여러 가지 이유로 절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절은 자신을 가장 낮추고 깨달음의 경지로 이르게 하는 수행의 방법으로써 경건한 마음을 다하여 수행하여야 합니다. 자연스럽게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건강이나 다이어트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체적인 목적과 구체적인 과정을 통하여 불자들의 원을 이룰 수 있듯이 목적과 방법이 뒤바뀌어서는 올바른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듯 자신의 한계를 넘어 올곧은 마음으로 절 수행을 할 때 여러분들의 삶을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불자가 될 수 있습니다.

천릿길도 한걸음부터입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자신의 잘못된 습관을 알아차리고 수행을 통하여 하나씩 원하는 모습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한 발짝 내딛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모든 불자님들 성불 합시다. ☺

불기 2559년 01월 11일 법회 법문 중에서.....

부처님의 생애(1)

도솔래의(兜率來儀)

- 도솔천에서 내려오시다 -

편집실

부처님은 지금으로부터 약 2,600여년 전, 기원전 624년에 지금 네팔의 타라이 지방인 카필라(Kapila)국 사카(Sakya, 釋迦)족의 정반왕과 왕비 마야부인 사이에 태어났습니다. 성은 고타마(Gotama)였고, 출가하기 전 이름은 싯다르타(Siddh rtha)였다. 고타마 싯달타가 출가 수행하여 깨달음을 얻어 부처님이 되자 사람들은 그를 석가모니(Sakyamuni) 즉, 석가족 출신의 성자라고 불렀다.

그 부처님의 지상에서의 일생을 8폭으로 나누어 그린 그림이 있는데 이를 이르러 팔상도, 팔상성도, 팔생탱 등으로 부른다.

이 팔상성도는 석가모니부처님께서 이 땅에 나투게 되시는 과정에서 열반에 이르기까지의 지상에서의 일생을 대표 장면을 중심으로 여덟폭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도솔래의상 - 비람강생상 - 사문유관상 - 유성출가상 - 설산수도상 - 수하항마상 - 녹원전법상 - 쌍림열반상 등 여덟 폭의 성스러운 그림을 이르는 것이다.

이중 이번에 살펴 볼 부분은 도솔래의는

부처님께서 전생에 수많은 생을 거듭하시면서 수행하신 후 도솔천에서 잠시 머무르시다 지상에 나투시기를 결심하시고 마야부인의 현몽을 통해서 지상에 인연을 맺게 되신다는 내용이다.

지금으로부터 한량없는 오랜 세월 전에 수메다[善慧]라는 한 수행자가 살고 있었다. 그는 막대한 재산을 사람들에게 남김없이 보시한 후 출가하여 히말라야에 들어가 수행자가 되었다.

그때 연등(燃燈)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다. 수도인 디파바티(Dipavati)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연등 부처님을 공양하고자 온갖 향과 꽃 훌륭한 음식을 준비하고 연등 부처님을 기다렸다. 마침 공양물을 구하기 위해 그곳에 들른 수메다는 연등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셨다는 말을 듣자 기쁜 마음으로 공양물을 준비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미 도시에는 왕의 지시로 모든 공양물이 부처님께 바쳐져 하나도 남은 것이 없었다. 그런데 마침 수메다는 아름다운 꽃

일곱 송이를 들고 가는 여인을 발견하고 그녀에게 가서 그 꽃을 팔 것을 간청했다.

그녀는 팔지 않을 마음으로 이 꽃 한 송이는 은 1백 냥이며, 또한 나와 결혼을 약속한다면 이 꽃을 팔겠다고 했다. 수메다는 처음에는 거절하였으나 결국 그 꽃을 부처님께 바칠 송고한 마음으로 그녀의 조건을 받아들여 다섯 송이를 샀다.

"견디기 힘든 고행을 하고 있는 이 수행자를 보라. 그는 지금으로부터 무량한 겁이 지난 후 세상에 출현하여 부처님이 될 것이니라."

이후 수메다는 모든 부처님이 이루신 깨달음의 근본적인 덕목인 10바라밀의 수행을 남김없이 생각해 낸 후 한량없는 세월 동안 보살행을 닦은 뒤 도솔천에 머물게



그러자 그녀는 수행자의 진지한 마음에 감탄하여 나머지 두 송이 꽃마저 부처님께 공양하라고 주었다. 수메다는 그 꽃을 연등 부처님께 바쳤다.

그때 마침 연등 부처님과 제자들이 지나가는 길에 진흙 웅덩이가 있었다. 수메다는 부처님께서 발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진흙 위에 머리를 풀고 엎드렸다. 진흙 바닥에 엎드린 채 그는 다짐했다.

"아! 나도 언젠가는 지금의 세존(世尊)이신 연등 부처님같이 완전한 인격자가 되기를..."

이 광경을 본 연등 부처님은 제자와 대중에게 말씀하셨다.

되었다. 그때 이름은 호명(護明)보살이었다. 호명보살이 10바라밀 수행을 닦고 도솔천에 머물고 있던 어느 날 모든 하늘 세계의 천인들이 보살의 처소에 모여들어 지상에 나투어 성불하실 것을 간청하니 호명보살은 천인들의 간청을 받아들여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자신이 태어날 때와 지방, 가계와 생모에 대해 살핀 뒤 깊은 선정 속에서 마야부인의 태에 들었다. 정반왕과 결혼한 지 20년이 넘도록 자식이 없던 마야부인은 그때 흰 코끼리가 오른쪽 옆구리로 들어오는 꿈을 꾸고 태자를 잉태하였다. ☺

야단법석을 펼치시는 부처님

- 보물 제1419호 선암사석가모니불괘불탱 및 부속유물일괄 -

괘불이란 불상(佛像)을 그려서 걸 수 있도록 만든 탱화로 법당 밖 야외에서 행사나 의식을 집행할 때에 걸어 놓을 수 있도록 만들어 진 것이다. 괘불은 그 크기가 대단하고 또 장엄스럽게 그려져서 괘불을 모시고 열리는 불사는 대법회를 이루어 왔으나 현재는 괘불도 매우 적고 야단에 설치하기도 어려워 큰 법회라 해도 괘불을 모시기 힘든 실정이다.

선암사 석가모니괘불탱은 본존불만을 단독으로 등장시켜 간단한 구성을 보여주는 독존도(獨尊圖) 형식으로 중앙에 홍련좌(紅蓮座)를 딛고 서 있는 입불상을 화면에 가득 차도록 큼직하게 그린 다음 상단 좌측에는 구슬장식이 화려한 금색 탑안에 사자좌를 한 '다보불(多寶佛)' 추정 불상이 앉아 있고, 밖에는 부처를 향해 합장한 보살상(대요설보살로 추정)이 배치되어있는 장면을 나타내었다. 이와 대칭하여 자리한 오른쪽에는 사자좌에 앉아 각자 손 모양을 달리하고 있는 '시방불(十方佛)'을 묘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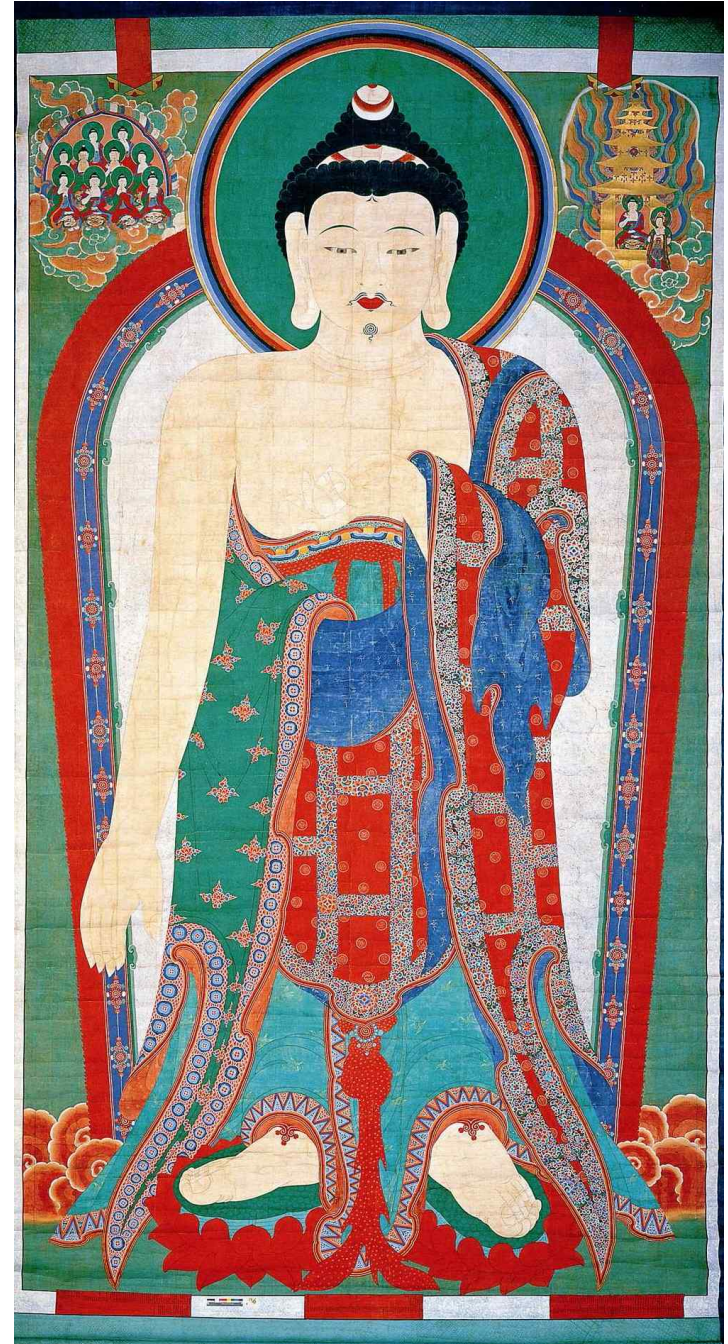
거의 손상 없이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는 괘불함은 전·후·좌·우 14곳에 손잡이용 고리가 달려 있으며, 껍의 각 모서리에는 어문(魚文)과 연화문(蓮花文), 나비무늬 등이 투각된 금속 장식을 장식하였다.

선암사 석가모니괘불탱의 복장유물은 황동계 후령통 1조와 감지주서(紺紙朱書) 발원문 1매 및 백지묵서(白紙墨書) 9매, 백지주서 및 인본(白紙朱書 및 印本) 다라니 9매 등으로, 비교적 현상이 양호한 편이다.



아울러 괘불설치에 사용되는 괘불대와 부속물들이 거의 온전하게 남아있어 괘불과 관련한 거의 모든 유물들이 일괄로 남아있는 보기드문 사례라 할 것이다.

특히 조성연대가 명확하여 화원인 '쾌윤(快允)' 작품의 초기 경향과 함께 조선시대 18세기 중엽 경 불화 화단의 흐름을 살피는데 자료적 가치가 있음은 물론, 알맞은 신체 비례에 유려하면서도 정밀한 필치로 이목구비와 손·발을 묘사하고 꽃무늬들을 나타냄으로써 세련미가 돋보이는 등 조형성 또한 뛰어나다. ☺



보물 제1419호 선암사석가모니불괘불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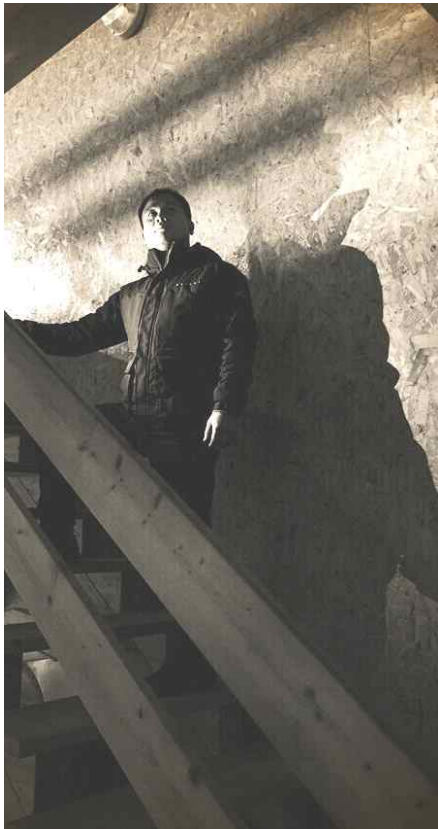
塵勞迥脫事非常 번뇌를 벗어나는 일이 예삿일이 아니니
緊把繩頭做一場 승두를 단단히 잡고 한바탕 공부할지이다.
不是一番寒徹骨 추위가 한 번 뼈에 사무치지 않을 것 같으면
爭得梅花撲鼻香 어찌 코를 찌르는 매화향기를 얻을 수 있으리오.

黃檗希運 禪師

지구공생(地球共生)

무구 박병열 거사

편집실



궁극의 가치는 공생

자신의 삶에 있어서 늘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사람은 어디에서나 빛이 난다. 짧은 불자를 보기 어려운 요즘 지역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불자가 있다.

박병열 불자는 일찍이 고등학교시절 순천대승사에서 '목우회'라는 불교학생회에서 활동을 한 바 있다. 지금은 파라미타나 대불련, 청년회 등 청소년, 청년 불자들의 활동이 많이 위축된 모양새이지만 8-90년대만 해도 불교학생회 활동의 전성기였던 시절 아닌가!

순천대학교 건축학부 대학원에서 연이 닿은 박병열 불자는 조교 소임을 볼 때나 연구실의 총무 역할을 수행할 때도 언제나 꼼꼼하고 명확한 일처리가 인상적이었는데 그 바탕에는 늘 사람을 향한 봉사하는 마음이 배어 있었다.

다년간의 건축사 사무소 근무를 마치고 건축사자격을 획득한 그는 현재 광양에서 '시인공간'이라는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며 사람의 삶을 담아내는 사람냄새 나는 집과 마을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몇 되지 않는 독일 PHI인증 패시브하우스 기술자이기도 한데 패시브하우스는 쉽게 말해 매우 적은 에너지를 가지고도 쾌적한 실내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집으로 인간과 지구와의 궁극의 공생을 추구하는 건축이라 할 수 있다.

만중생이 더불어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꾸고 만들어 가는 것이 불교적 가치라 한다면 적어도 지구에게 피해를 덜 주면서도 인간 역시 쾌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 역시 불교적 가치가 아닐까?

'부족규보 무이지천리' (不積跬步, 無以至千里)

제가 학창시절 고민 하던 것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모여 있는 집합적 의미의 마을이 아니고 서로 교감하며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그런 인문학적인 마을 말입니다.

그러한 마을 만들기 위해서는 집과 마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많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제 사무실을 찾아오는 건축주들에게 좋은 집과 마을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시간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지난 가을학기 순천대학교 평생교육원에 기회가 생겨서 '실패 없는 내 집짓기, 우리동네 건축학교'라는 강좌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이론, 설계, 시공, 부동산 등 다양한 방면의 선생님들과 합동강의 형식으로 이루어 졌었는데 첫 강좌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께서 동참 하셨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앉아서 맞이해서만 한계가 있구나. 역시 뜻한 바가 있으면 사람들 속으로 나아가 하는구나!'

부처님께서 직접 법륜을 굴리신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강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면 에너지를 적제 쓰면서도 쾌적한 집을 지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건축과 마을이라는 하드웨어적인 일들이 그 자체에 머물지 않고 결국 삶의 모습과 질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에 영향을 미칩니다. 즉, 처음엔 좋은 집에서 편안하고 화목한 가정이 만들어 질 것이고 그러한 사람이 모여 사는 좋은 마을, 밝고 건강한 마

음이 되어서 사회 전체로 차츰 그 기운이 넘쳐서 우리 모두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집 한 채 잘 지었다고 해서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겠습니까마는 꿈을 이루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생각하고, 그 작은 걸음마저 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람들이 어우러져 사는 살맛나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 주변사람들과 연을 넓히며 노력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가 지구를 병들게 하지 않고 공생하게 되겠지요.

아마도 이런 일들이 제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불교적 삶이 아닐까 싶네요.

꿈이 있고 그 꿈을 이루어 간다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있어서 더 없는 행복일 것이다. 미완의 꿈을 꿈에서 그치지 않고 차근차근 이루어가는 그의 삶처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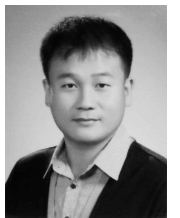
그는 아직도 할 일이 많다. 더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또 배우며 연구하며 노력중이다.

인터뷰를 마친 그는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하여 세계최대 건축박람회인 BAU2015와 유럽의 패시브하우스 건축물을 답사하기 위하여 독일로 향했다. ☺

무구 박병열

건축사사무소 시인공간 대표

건축사 / 공학박사수로
순천대학교 건축학부 강사
순천대 평생교육원 강사
대승사 목우회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청소년지도사



사찰의 구조 1. - 삼문(三門)

김희철 / 선암사 종무실장



사찰은 부처님을 모시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수행 정진하는 스님들의 수행 처이자 거처이며 삼보에 귀의한 신도들의 신행의 공간이다.

이러한 복합적이고 다양한 기능으로 인하여 사찰은 다양한 영역으로 구분되어 구획되어지게 된다.

사찰은 건립연대, 사상이나 사격, 건립 위치 등에 따라 그 구성이 달라지게 된다.

지금 우리나라의 가람배치는 삼국시대 불교가 유입되던 초기의 가람배치와는 많이 다른데 고구려의 경우 중국과 비슷한 1탑3급당식 가람배치를, 백제의 경우 1탑1급당식, 신라의 경우 두 가지가 공존하다가 통일신라에 이르러 감은사지나 불국사처럼 쌍탑식 가람의 전형이 만들어지게 되었다고 한다.

이후 고려 조선시대를 거쳐 가람배치는 시대와 사상, 사격에 맞춰 변화되어왔다.

가람을 구성하는 요소에는 불보살님을 모신 전각과 스님들의 수행과 생활을 위한 승원인 선방과 강당, 요사채 등이 있고 후원이나 창고, 해우소등 부속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공간은 문과 담장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현재 우리나라 사찰의 가람배치 전형을 딱히 무어라고 하기엔 1600년의 역사 속에서 겪은 우여곡절이 너무 많아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굳이 일반화 해 본다면 삼문중정형(三門中庭形)이라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삼문(三門)이란 외부에서 사찰 중심에 이르는 진입체계를 이르는 말로 일반적으로 '일주문 - 천왕문 - 불이문'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중정형(中庭形)이란 절 마당을 중심으로 중심 불정이 위쪽에, 좌우측에 부속전각이나 승방이, 아래쪽으로 누각이나 불이문 등이 배치되는 형태를 말한다.

불계(佛界)에 이르는 세 관문

삼문을 먼저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일주문이 가장 앞에 위치하고 그 뒤를 이어서 사천왕문이 위치하고 마지막으로 불이문이나 해탈문이 위치한다.

사찰의 경우에 따라서 일주문이 없거나

천왕문과 불이문의 순서가 바뀌거나 천왕문 앞에 금강문이 있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다.

이러한 진입체계는 불교의 우주관과 상관이 있다고 하는데 우주의 중심에 있는 수미산을 올라 불계에 진입하는 과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한다.

먼저 일주문은 수미산의 기슭으로 불가에 입문하는 단계를 상징하고 사천왕문은 수미산 중턱에 위치한 사천왕정을 의미하며 불계를 외부의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마지막으로 불이문은 수미산의 정상에 위치한 도리천의 입구를 들어가는 문으로 여기서 절 마당은 천계로서 불이문이 그 입구가 되는 것이라 한다.

사찰은 이 불이문 또는 해탈문을 통해 주불전 앞으로 나아가며 장엄한 부처님의 세계와 접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 구성단계를 풀어보면 먼저 긴 산길을 올라오는 과정은 인생의 질곡을 의미하고 그 고생 끝에 만나게 되는 일주문은 해탈을 향한 새로운 희망이며 불가로의 귀의를 상징한다.

큰 집에 들어 어둡고 킁킁한 곳에서 두 눈

을 부릅뜬 사천왕과의 만남은 일말 마음속에 남아있던 잡스러운 생각을 버리고 보다 경건하게 정진하도록 마음을 다잡아 준다.

별도의 불이문이나 일반적으로 대웅전 앞의 누각 아래나 옆을 통해 올라가는 과정은 지금까지 잘 추슬러온 마음이 어둡고 긴 누각아래를 거쳐 환하게 밝은 대웅전 마당에 오르며 장엄한 대웅전과 그 안에 성스럽게 모셔진 부처님과 맞이하며 이미 세속은 떠나고 오로지 부처님을 향한 환희와 희열만 남게 되는 종교적 감동을 경험하게 하는 이 극에 달하게 된다.

서양의 교회 건축이 건물 내에서 경험하는 종교적 감흥을 우리는 사찰이라는 큰 공간속에서 풀어냈다고 볼 수 있다. ☺

현광 김희철

現)선암사 종무실장

순천대학교 건축공학박사 수료
순천대학교 평생교육원 강사
3급 정학예사-建築史
(사)역사문화연구원 마루
선임연구원



- 1월 행사 소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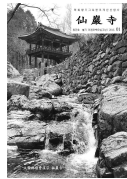
01. 중무소 신년 워크숍

1월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제주도에서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 중무소 신년 워크숍이 개최 되었습니다. 지난 한해의 평가를 밑거름 삼아 신년의 사업계획을 논의 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02.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 월보 『仙巖寺』 발간

신도님들과 좋은 이야기를 나누고 소통하는 공간의 의미로 발간되었습니다. 꾸준히 유익하고 행복한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신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03. 불기 2559년 신년법회

지난 1월24일 신도님들과 신년 법회를 봉행 하였습니다. 삼보를 주제로 주지스님의 기초교리 법문이 시작되었습니다. 바쁘신 일정에 많은 신도님들이 참석하여 뜻 깊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04. 교구본사주지협의회 참석

지난 29일 경북 김천의 직지사에서 열린 제37차 교구본사주지협의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종단의 여러 안건들과 더불어 선암사 정상화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신도님들의 관심과 노력에 힘입어 하루빨리 정상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05. 금산사 룬비니 산악회 성지순례 방문

지난 25일 100여명의 금산사 룬비니 산악회의 성지순례 방문이 있었습니다. 선암사 대웅전 앞에서 주지스님의 법문을 듣고 많은 인원에도 끝까지 질서 있는 모습으로 회향하신 신도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06. 김광진 의원 선암사 내방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국회의원이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 주지스님을 방문하였습니다. 주지스님과 차담을 나누고 점심공양을 하며 선암사의 현황을 알리고 나아가 선암사의 정상화를 위한 여러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 2월 행사 안내 -

01.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 월보 『仙巖寺』 통권 2호 발행

월간 『仙巖寺』 2월호가 발행 되었습니다. 창간호에서 4쪽이 추가되어 조금 더 유익하고 풍부한 내용으로 신도님들과 소통창구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거나 함께 기뻐 할 이야기가 있으면 월간 『선암사』 편집실로 연락 바랍니다.

02. 국립문화재 연구소 - 건조물 문화재 생물피해 모니터링 사업 협의

오는 2월 3일 국립문화재 연구소에서 선암사의 목조 및 석조 등의 건조물문화재 생물피해에 대한 모니터링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를 있을 예정입니다.

03. 설날 선암사 무료입장

선암사에서는 매년 설날 선암사를 찾아 신년 다짐을 하고 기도를 올리시는 분들을 위하여 설 당일에 주차장과 매표소를 무료 개방을 하오니 가족 친지들과 천년고찰 선암사에서 희망찬 새해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04. 보타사 성지순례

오는 연휴 마지막 날(22일)에 대운산 보타사에서 선암사로 방생법회 및 성지순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불기 2559년 2월 월례법회 안내

을미년 새해가 밝고도 벌써 한 달이 지나
두 번째 법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법회부터 시작된 주지스님의 기초교리 강좌로
더욱 풍성한 선암사 월례법회에
불자님들을 초대합니다.

불기 2559년 2월 월례법회

일 시 불기 2559(2015)년 2월 14일(토)
오전 11시
장 소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
대 상 선암사 신도 및 가족, 지인 누구나
동참금 1만원



- 사랑방 이야기 -

01. 불자남매 자원봉사

정재용 신도의 자녀 삼남매 중 정민경 불자와 정성현 불자가 지난 1월 장애아 전담 순천 공립우석어린이집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보살행 실천에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두 남매는 청소년 신도로서 열심히 법회에 참석중인데 자리아타의 실천을 몸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02. 박병열 신도 독일 BAU2015 참석

패시브하우스를 지향하는 건축사 박병열 신도는 지난 1월 20일 ~ 30일 까지 독일을 방문하여 세계최대 건축박람회인 BAU2015에 참석하였습니다. 글로벌한 신도님들의 행보에 박수를 보냅니다.



01.



02.



03.



04.

03. 허영 신도 주택인테리어 공사 완료

건축 인테리어업을 하고 있는 허영 신도는 지난 1월 서면 주택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여 최근 완료하였습니다. 허영 신도는 좋은 건축주와의 긴밀한 협조로 보람 있는 공사였다고 자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집 많이 지으시길 기원 드립니다.

04. 김성호 신도 봉사활동 실시

보안업체에 근무 중인 김성호 신도는 여수지역 봉사단체인 보두모아봉사대에서 매월 알찬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는 여수 만성리 정화활동 봉사에 두 아들과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신도님들의 보살도 실천에 박수를 보냅니다.

- 선암사 성지순례 안내 -

조계산 자락에 위치한 천년고찰 선암사는 우리나라 전통 불교문화의 정수를 담고 있는 곳입니다. 올미년 정월에 선암사를 참배하시고 무량한 복덕을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 문의처 :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 종무소
- 주소 : 전남 순천시 승주읍 선암사길 450 (죽학리 802)
- 전화/팩스 : 061-725-5108 / 061-753-5108
- 전자메일 : tnrff14@hanmail.net

- 월간 『仙巖寺』 정기구독 안내 -

- 월간 『선암사』가 정기구독 회원을 모집합니다.
- 정기구독 회원이 되시면 매월 가정과 직장에서 월간 『선암사』를 편안하게 받아보시고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문의 월간 선암사 편집실
 전화 : 061-725-5108 / 팩스 : 061-753-5108
 계좌 농협 301-0128-6618-31 / 예금주 :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
 구독료 3만원/년

